

어학연수생 주간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APU 말레이시아	날짜	2024. 2. 4
학과	간호학과	이름	홍보람
학번	2248027	이메일주소	ckl3032@naver.com

학교 생활

1. 학업 관련

수료증 수여식이 있었고 성적표를 받았다. writing 이 2 주 정도는 형식에 맞춰 써야 되는 것과 레벨에 맞는 단어와 접속사, 문법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매시간 이어지는 피드백이 힘들었다. 과연 내가 수료할 때는 잘 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그런데 cause->affect 본문 2 개 이상 서론, conclusion 까지 1 시간 반만에 써서 낼 수 있었다. 우리반에 주어진 주제 중의 하나인 Having many babies 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차이는 여성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가장 기뻐던 것은 writing 에서 A 를 받게 된 것이었다. 소감 발표하는 시간에 무대로 올라오게 하셔서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키셨는데 부천 대학교와 APU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감사를 영어로 말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좋은 추억이 되었다

2. 생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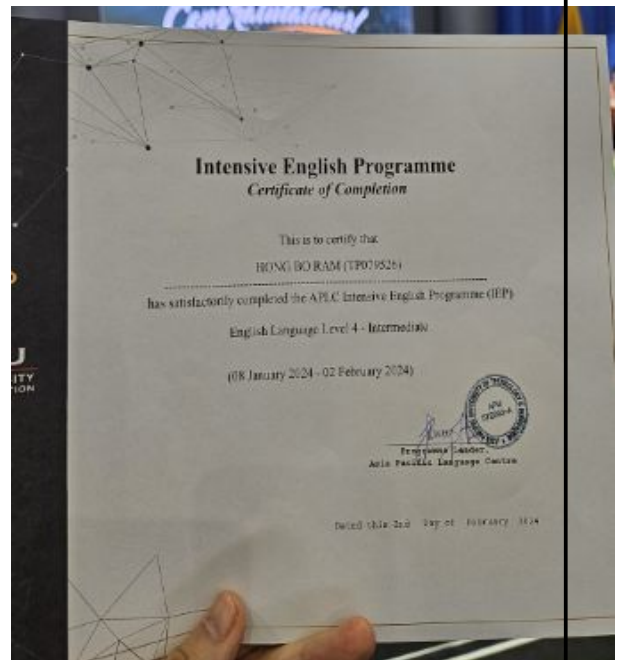
ibis 호텔이 가기 전날 와이파이기가 교체되었다. 와이파이기가 잘 안되어서 인터넷 과제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텔 로비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PP도 하고 과제를 하기도 했다.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다. 말레이시아가 예상외로 3:3의 결과를 내어서 친구들과 분위기 좋게 축구를 볼 수 있었다.

3. 기타

향후 계획

둘째주까지 저녁밥을 나가서 안사먹고 한국에서 가져간 햇반과 볶음김치만 먹었는데. 그이유는 listening 이 너무 안들려서 내가 여기온게 맞나 영국식 영어는 심지어 스펠링도 달랐고 이곳은 인도식 영어도 있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공항에서 영어가 말레이어 섞인 영어가 나오는데 알아듣고 있는것을 부천대 간호학과 후배들과 이야기하고 깔깔 웃었다.사람 귀라는게 참 신기하다 싶었다.

사진자료



학생증에 현금으로 충전해서 학교내 편의점과 카페테리아에서 쓸수있다. APU 학교티셔츠를 사서 수료식에 입었다.

수료증 2 주만에 중간고사를 보고 아침부터 4 시까지 이어진 수업, 한학기를 한달에 몰아서 사는 기분이었다.자랑스럽다.



국립박물관에서 이슬람 박물관으로 가는 길길 37도 더위에 산을 넘었다. 자유시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전하지않으면 볼수없는 아름다운 장면..돌아가고 느려도 내길에는 아름다운것들이 보이니까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부를축적할수있었던 이유 바로 주석이라는 광물때문 어딜가도 중국어로 다짜고짜 말시키는 사람들때문에 영어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하고 왔는데 중국에 있을때보다 끈끈한 동포애? ㅋ그런것들을 보여주신 중국분들 ..